

April 2026
No. 377

INSS

전략보고

찾잔 속의 태풍인가, 경제적 쓰나미인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

임수호
shlim@inss.re.kr

- I. 서론
- II. 최근 시장 환율 · 물가 폭등의 원인
- III. 향후 전망

찾잔 속의 태풍인가, 경제적 쓰나미인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

I. 서론

II. 최근 시장 환율 · 물가 폭등의 원인

1. 시장 환율
2. 시장 물가

III. 향후 전망

1. 시장
2. 북한경제 전반

찾잔 속의 태풍인가, 경제적 쓰나미인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

저자 | 임수호

국문 초록

2024년 2/4분기 시작된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폭등세가 만 2년째 지속되고 있다. 2024년 1/4분기 대비 2026년 1/4분기 현재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 쌀값은 각각 377.2%, 329.7%, 251.5%가 올랐다. 이는 북한에 시장제도가 정착된 이래 세 번째 장기폭등 사례에 해당한다.

환율의 경우, 통화 증발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정책 모순으로 인한 시장 외화 수급 불균형, 민간의 기대심리와 투기적 외화수요에 그 원인이 있다. 물가의 경우, 정제유는 환율 폭등에 직격탄을 받은 데다 단속에 따른 시장 공급 축소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식량(쌀·옥수수)의 경우, 통화 증발에 따른 실물 대비 원화 가치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및 투기수요 증가, 시장 곡물 거래 단속에 따른 시장 공급량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환율·물가 폭등의 핵심 원인은 통화 증발에 따른 외화 및 실물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점에서, 향후 폭등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시장의 외화·실물 투기수요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 통제는 오히려 환율·물가 폭등을 가속할 소지가 크다. 북한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 '가격 시그널'을 따라 국영부문 외화·물자가 시장으로 유출되거나 거래에서 퇴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배급계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도 악화할 전망이다.

주제어: 인플레이션, 통화 증발, 투기, 수급 불균형, 시장 대 국영유통

I 서론

- 2024년 2/4분기 시작된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폭등세가 만 2년째 지속
 - (환율) 2024년 1/4분기 대비 2026년 1/4분기 현재 원/달러 환율은 377.2%(연평균 188.6%), 원/위안 환율은 329.7%(164.8%) 상승
 - (물가) 같은 기간 쌀 251.5%(연평균 125.7%), 옥수수 145.9%(72.9%), 돼지고기 253.3% (126.7%), 휘발유 272.1%(136%), 경유 282.3% (141.2%) 상승

- 북한 시장제도 정착 이후 세 번째 장기 폭등에 해당
 - (1차)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7년간 ('02-3/4분기 ~ '09-3/4분기)
 - (2차) 2009년 말 <화폐교환> 사태 이후 3년간 ('10-1/4분기 ~ '13-1/4분기)
 - (안정기) <화폐교환> 사태 후폭풍 진정 이후 11년간 ('13-1/4분기 ~ '24-1/4분기)
 - (3차) 2024년 2/4분기부터 만 2년째 지속 → 폭등세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소지 농후 (후술)

- 이 글은 현 폭등세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시장에 국한된 '찾잔 속 태풍'에 그칠지, 경제 전체를 덮치는 '경제적 쓰나미'로 진화할지 전망
 - 과거 1, 2차 폭등 때는 '가격 시그널'을 따라 국영부문 내 외화와 물자가 시장으로 급속히 유출 → 국영부문 외화·물자 부족 심화 및 시장 확대 초래
 - 반면 현 폭등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국영부문 확대 및 시장 축소가 체계적·제도적으로 진행된 후 발생 → 국영부문 및 북한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 검토 필요

〈표 1〉 주요 시기별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상승률

단위: %

| 비교 기간 | 구분 | 원/달러 | 원/위안 | 쌀 | 옥수수 | 돼지고기 | 휘발유 | 경유 |
|-----------------------------|-----|---------|---------|---------|---------|---------|-------|---------|
| 1차 폭등 ('02-3/4~'09-3/4) | 누적 | 1,078.8 | 1,363.4 | 3,712.2 | | | | |
| | 연평균 | 154.1 | 194.8 | 530.3 | | | | |
| 2차 폭등 ('10-1/4~'13-1/4) | 누적 | 1,507.7 | 1,662.8 | 1,808.6 | 1,161.9 | 1,446.5 | 855.8 | 1,160.7 |
| | 연평균 | 502.6 | 554.3 | 602.9 | 387.3 | 482.2 | 285.3 | 386.9 |

| 비교 기간 | 구분 | 원/달러 | 원/위안 | 쌀 | 옥수수 | 돼지고기 | 휘발유 | 경유 |
|----------------------------|-----|-------|-------|-------|-------|-------|-------|-------|
| 안정기 (‘13-1/4~’24-1/4) | 누적 | 0.8 | -4.5 | -21.2 | -18.6 | 36.3 | 81.1 | 48.6 |
| | 연평균 | 0.1 | -0.4 | -1.9 | -1.7 | 3.3 | 7.4 | 4.4 |
| 3차 폭등 (‘24-1/4~’26-1/4) | 누적 | 377.2 | 329.7 | 251.5 | 145.9 | 253.3 | 272.1 | 282.3 |
| | 연평균 | 188.6 | 164.8 | 125.7 | 72.9 | 126.7 | 136.0 | 141.2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북한 시장 환율·물가 데이터(2006~2024, 5개 지역 평균), <데일리 NK> 북한 시장 환율·물가 데이터(2025~2026, 3개 지역 평균),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p.133 (2000~2005, 지역 범위 불분명)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주 1: 2006년 1/4분기 ~ 2024년 4/4분기는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 2025년 1/4분기 ~ 2026년 1/4분기는 <데일리 NK> 데이터 활용 (한국은행 데이터 업데이트시 대체 필요).

주 2: 2000년 1/4분기 ~ 2005년 4/4분기의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한기범 데이터에 2006년 4/4분기의 한국은행 수치와 한기범 수치의 비율을 적용해 역산,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상승률을 적용해 역산, 물가(쌀값)는 한기범 데이터의 상승률을 한국은행 수치에 적용하여 역산.

II 최근 시장 환율 · 물가 폭등의 원인

1. 시장 환율

■ 통화 증발에 따른 외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¹

-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걸쳐 시행된 명목임금 인상(10배~40배, 평균 20배)을 뒷받침하고, 2024년부터 시행된 대형 국책사업(〈지방발전 20×10 정책〉) 임금·자재(국내분) 조달을 위해 원화 대량 증발
- 원화 증발은 실물 법화 발행 외에도 고액 유사 법화(5만원권 ‘돈표’) 발행, ‘디지털 원화’ 지급(전자 지급·은행카드 계좌에 원화 숫자 기입) 방식으로도 진행
- 또한 기업이 임금 조달을 위해 ‘돈주’들에게 원화를 빌리거나 보유 현물을 암시장에 팔면서 퇴장했던 원화가 시장에서 재유통(사실상 통화 증발과 같은 효과)

■ 정책 모순에 따른 시장 외화 수급 불균형

- 2020년부터 무역에서의 내각 중심 수평적·수직적 집권화², 2024년 4월부터 개인 외화사용 금지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외화가 급감하고, 일부 외화는 거래에서 퇴장
- 2024년 하반기부터 당국이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필요한 수입(import)을 지방과 민간에 전가하면서 시장 외화 수요가 폭증
 - ※ 지방정부와 무역회사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민간에 외화를 강제 할당하거나 ‘돈주’로부터 비싼 값에 외화를 매집³
- 2023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전쟁 특수로 외화수지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지방과 민간에 국책사업용 외화 조달 부담을 전가, 환율 폭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책 실패에 해당⁴

1 양문수, “북한의 2023~24년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2025).

2 과거 시장 외화 공급은 보따리상이나 ‘돈주’가 사무역으로 직접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특권기관(당·군대)이나 내각 소속 무역회사·기업이 공식·비공식 무역으로 벌 외화 중 일부가 시장으로 유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시점부터 사무역은 전면 금지되고(일부 소규모 밀무역만 잔존) 특권기관 무역도 내각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기관간 내각 중심 수평적 집권화), 내각 소속 무역회사도 통제합되고 통제가 강화돼(내각 기관의 수직적 집권화) 시장으로의 외화 유출요인이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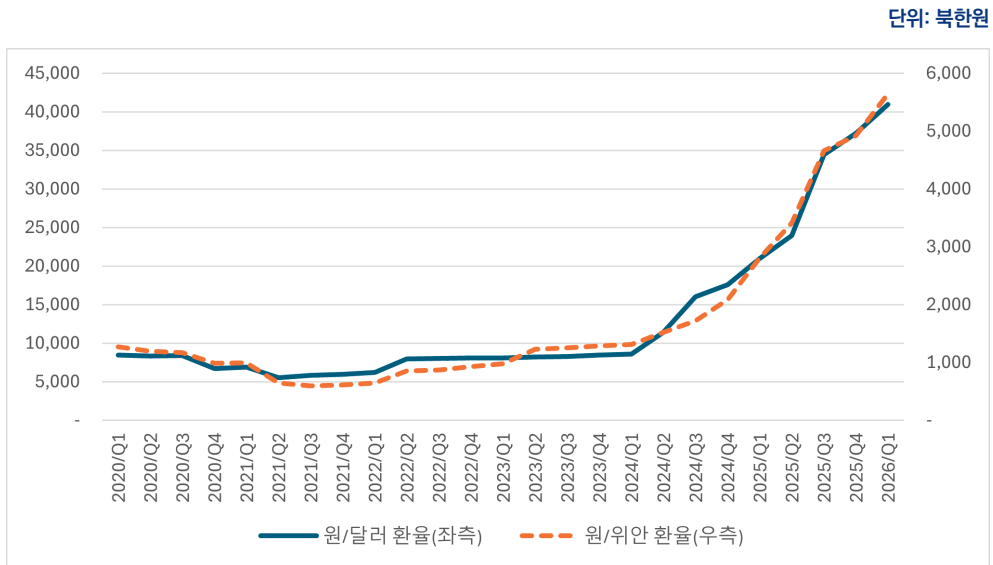
3 이종규, “기रो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2026), p.16; 남진욱,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2026), pp.6-7.

4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특수와 그것이 외화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임수호,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INSS 전략보고〉 374호(2026), pp.12-14.

■ 민간의 기대 심리와 투기적 외화 수요⁵

- 명목임금 인상과 '돈표' 남발 등 통화 증발에 따라 내화 가치의 장기 폭락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
- 이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내화 대신 안전 실물자산인 외화와 쌀에 대한 투기적 비축 수요 폭증
- ※ 2024년 말부터 '화폐개혁' 소문이 유행하자 당국이 공식 부인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상황⁶

〈그림 1〉 최근 북한 시장 환율 추세(2020~2026, 분기별)



자료: 〈표 1〉 주석 참조

2. 시장 물가

1) 휘발유와 경유

■ 환율 폭등의 직격탄

- 북한 시장 거래 휘발유·경유는 전량 국가의 공식·비공식 수입 물량에서 합법적 경로로 할당되거나(연유공급소), 불법적 경로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원화 가격에 환율 상승분이 바로 반영⁷

5 이종규, 앞의 글, p.12; 남진욱, 앞의 글, p.35. 2024년 9월 20일 내각이 전국 당기관 및 인민위원회에 배포한 정치사업자료(〈모두 다 높은 공민적 자각을 가지고 환율안정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설데 대하여〉)를 살펴보면, 북한 당국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와 투기적 외화 수요를 강하게 경계. 선화, “北, ‘환율 상승 조장하면 단호히 쳐갈겨야’ 정치자료 배포,” 〈데일리 NK〉 (2024.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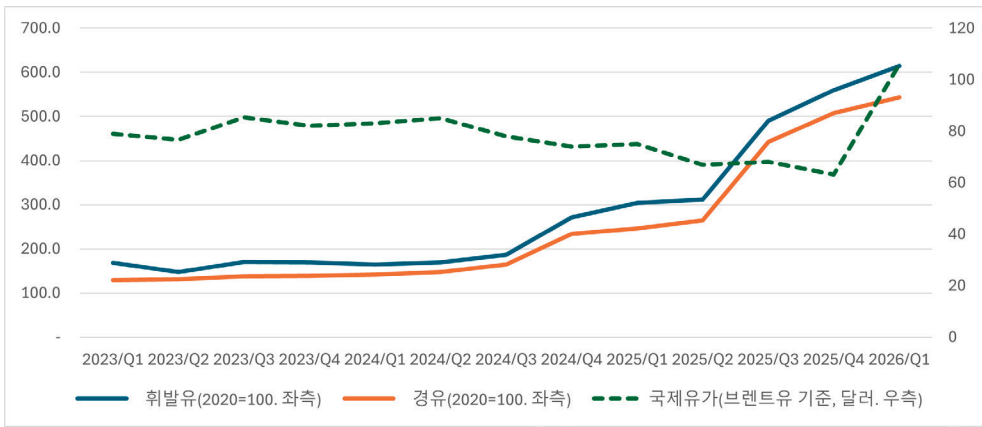
6 강창욱, “1달러가 4만원… 北 화폐가치 대폭락시킨 그 소문,” 〈국민일보〉 (2025.1.17).

7 북한 당국은 수입된 휘발유·경유 중 일부를 국영 ‘연유 공급소’를 통해 판매. 다만, 연유 공급소 상당수가 ‘돈주’ 자본으로

- 2024~2025년 국제유가가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가는 오히려 폭등한 이유도 이 때문
- 역으로 2026년 3월 이란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세가 반영되면 향후 북한 시장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 농후

〈그림 2〉 최근 북한 휘발유·경유 시장가격 추세(2020~2026, 분기별)

단위: 2020년=100, 달러/배럴



자료: 북한 시장가격은 <표 1> 주석 참조. 국제유가(브렌트유)는 FRED/EIA

■ 단속 강화에 따른 시장 공급 축소

- 2023년 하반기부터 대러 군수물자 판매 대금 일부를 휘발유·경유로 받았기 때문에 북한경제 전체 공급량은 늘었을 가능성 다대

※ '23.8~'25.12월 군수물자 판매 대가로 받은 정제유 중 확인분은 1.74억~2.11억 달러(평균 1.93억 달러)로 물량 환산시 229만~276만 배럴(평균 252만 배럴) 상당 (동 기간 평균 국제유가 76.1 달러/배럴)⁸

- 그러나 2024년부터 대형 국책사업, 군수공장 가동률 증가(대러 판매용 군수물자 생산)에 따른 수요가 늘면서 단속이 강화, 시장 유출물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소비재에 가까운 휘발유 가격 상승률('24-1/4분기 ~ '26-1/4분기 연평균 136%) 보다 산업용 비중이 높은 경유 가격 상승률(연평균 141.2%)이 더 높은 것도 동 산업 수요 증가 때문⁹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시장거래와 다를 바 없음. 한편, '돈주'는 휘발유·경유 수입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물량 중 일부를 공급받아 '씨비차'(민간 화물차) 운영자에게 도매 판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물량은 소매상들에게도 유출되는데, 이들은 장마당에서 드럼통, 페트병 단위로 판매.

8 임수호, 앞의 글, p.13.

9 남진욱, 앞의 글, pp.43-44.

2) 쌀과 옥수수

- 통화 증발로 인한 실물 대비 원화 가치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및 투기 수요 증가
 - 뚜렷한 실물 공급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명목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가 증발되면서¹⁰ 실물 대비 원화 가치 폭락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인 쌀에 대한 실물 투기 수요 작용
 - ※ 옥수수값 상승률('24-1/4분기 ~ '26-1/4분기 연평균 72.9%)보다 쌀값 상승률(125.7%)이 훨씬 높은 것은 환금성이 높은 쌀에 대한 실물 투기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시장 곡물 거래 단속에 따른 시장 공급량 감소
 - 북한경제 전체 차원에서 주식인 쌀과 옥수수 공급량은 큰 변화가 없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시장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
 - 또한 쌀과 옥수수 총공급량에서 외부 도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으므로 환율 상승이 원화 환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 그러나 2022년 말부터 양곡전매제가 실시되어 곡물, 특히 쌀의 시장거래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시장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¹¹
 - ※ 과거 시장 공급 물량은 협동농장 생산물 중 수매 후 남은 물량 중 일부, 각종 수입 물량, 기타 소토지 경작 물량으로 구성
 - ※ 양곡전매제 이후 수매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수매 후 남은 물량, 수입 물량, 소토지 경작물량도 국영 영농물자교류소에서만 거래하도록 규정(개정 <양정법>, <농장법>)
 - 옥수수보다 쌀에 대한 시장거래 단속이 훨씬 엄격 → 쌀값 상승률이 옥수수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현 상황에 일부 영향

10 자세한 내용은 <II-1> 시장 환율 관련 내용(통화 증발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참조.

11 북한 양곡전매제에 대해서는 임수호,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 전략보고> 224호(2023).

〈표 2〉 최근 북한 주요 곡물 공급 추세 (2023~2025)

단위: 천톤, %

| 품목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쌀 | 생산 | 2,110.0 | 2,149.0 | 2,250.0 |
| | 도입 | 164.3 | 19.7 | 18.3 |
| | 공급 | 2,274.3 | 2,168.7 | 2,268.3 |
| | 전년대비 증가율(%) | | -4.6 | 4.6 |
| 옥수수 | 생산 | 1,701.0 | 1,610.0 | 1,520.0 |
| | 도입 | 6.8 | 0.4 | 0.3 |
| | 공급 | 1,707.8 | 1,610.4 | 1,520.3 |
| | 전년대비 증가율(%) | | -5.7 | -5.6 |
| 쌀+옥수수 | 생산 | 3,811.0 | 3,759.0 | 3,770.0 |
| | 도입 | 171.1 | 20.1 | 18.6 |
| | 공급 | 3,982.1 | 3,779.1 | 3,788.6 |
| | 전년대비 증가율(%) | | -5.1 | 0.3 |
| 밀가루 | 생산 | 92.2 | 122.5 | 162.0 |
| | 도입 | 129.2 | 83.4 | 98.1 |
| | 공급 | 221.5 | 205.9 | 260.1 |
| | 전년대비 증가율(%) | | -7.0 | 26.3 |
| 곡물 | 생산 | 4,820.0 | 4,780.0 | 4,900.0 |
| | 도입 | 301.4 | 103.5 | 116.6 |
| | 공급 | 4,980.0 | 4,895.2 | 4,928.4 |
| | 전년대비 증가율(%) | | -1.7 | 0.7 |

자료: 생산량은 농촌진흥청 추정치로, 2023~2024년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5년은 농업진흥청 보도자료(“올해 북한 식량작물 490만톤 생산, 전년 대비 12만톤 증가”(2025.12.23) 인용. 도입량은 2023~2024년은 UN Comtrade, 2025년은 <중국해관통계> 인용.

주 1: 공급량 중 도입량은 당해 도입량, 생산량은 전해 및 당해 생산량 중 곡물별 수확시점을 고려하여 필자 산정(당해 생산량+공급량 단 순 합계와 다소 차이)

주 2: 밀가루 생산량은 밀 생산량에 FAO/WFP 추정 가공 손실률(37.5%)을 적용하여 추정. 밀 생산량은 맥류(밀과 보리) 생산량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자 추정('23년 68%, '24년 70%, '25년 72%)

주 3: 밀가루 도입량은 공식 도입량과 러시아로부터의 비공식 도입량(대러 군수물자 판매대가) 추정치를 합산하여 계산. 비공식 도입량은 '23.8~'25.12 기간 확인된 식량 도입액(0.4억 달러) 추정치를 전년도 對중국 밀가루 수입단가(0.37달러/kg)로 나눠 추산(러시아로부터 비공식적 도입한 식량은 전량 밀가루로 가정).¹²

주 4: 곡물 중 쌀, 옥수수, 밀·밀가루 이외 품목은 감자, 보리, 대두, 기타 잡곡을 의미.

12 0.4억 달러의 근거에 대해서는 임수호,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p.13 참조.

III 향후 전망

1. 시장

- 향후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농후
 - 이번 환율·물가 폭등의 핵심 원인은 통화 증발에 따른 외화 및 실물 대비 원화 가치 하락 (II 참조)
 - 일반적으로 단순 수급 불균형이 아닌 대규모 통화 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화폐 시스템 신뢰 붕괴를 동반하므로 단기 해소가 곤란
 - ※ 그간 김정은 정권은 장기간의 환율·물가 안정을 배경으로 화폐금융제도 안착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당국궤 인플레이션이 재발함에 따라 노력이 허사로 귀결
 -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 상황에서 강제적 조치 외에 시장 유동성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데, 유동성 강제 회수는 시스템 신뢰 붕괴를 촉진하는 악순환 고리 창출
 - ※ 2009년 화폐교환 조치, 즉 '시중 원화 강제 회수 조치'가 재실시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¹³
 - 더욱이 북한 당국은 긴축 재정 등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각종 국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채택하는 등 환율 및 물가 폭등을 오히려 부채질
 - ※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 지출 규모를 대폭(5.8%) 증액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 ※ 최근 전년 대비 예산 지출 규모 증가율: '23년 1.7% → '24년 3.4% → '25년 3.8%¹⁴
- 시장의 외화 및 실물 투기수요가 남아 있는 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오히려 환율 및 물가 폭등을 가속할 소지 다대
 - 당국은 2024년 4월 개인 외화사용 금지 이후 협동화폐거래소에서 외화를 원화로 교환해주고 있으나(8,900원/달러), 지금처럼 환율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
 - ※ 오히려 외화 암거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상황
 - 또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원화 통화량 조절을 시도하고 있으나, 환율 폭등, 카드 결제 인프라 부족, 실물 투기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극히 의문

13 구권과 신권을 100:1 가치로 교환한 2009년 화폐교환 조치의 본질은 구권의 교환 한도를 설정(인당 10만원), 한도를 넘는 시중 화폐를 모두 강제 폐기한 것. 시중 유동성을 강제로 줄인 후 당국은 명목임금을 대폭 인상(구권 기준 임금을 신권으로 지금, 사실상 100배 인상),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초래. 화폐교환을 초래한 인플레이션이 2002년 7.1 조치 때 임금 인상 및 통화 증발 때문이라는 점에서 현재 주민들이 다시 교환 한도가 설정된 화폐교환 조치, 즉 강제적 유동성 회수 조치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판단됨. 2009년 화폐교환에 대해서는 임수호,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대내경제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2010).

14 김효정,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수정," <연합뉴스> (2026.3.24).

- 통화 증발이 환율·물가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면, 현 3차 폭등 현상은 2002~2009년 1차 폭등 때의 초반기 상황에 불과

 - 북한 당국은 통화 증발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명목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통화 증발 규모를 간접 추론
 - 2002년 7.1 조치로 명목임금이 1,700% 오르자(인상 전후 임금 격차 평균 18배), 이후 2년간(2002년 3/4 분기 ~ 2004년 3/4분기)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 쌀값은 각각 400%, 400%, 841.2% 상승
 -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걸쳐 명목임금이 1,900% 오르자(인상 전후 임금 격차 평균 20배), 이후 2년간(2024년 1/4분기 ~ 2026년 1/4분기) 同 항목들이 각각 377.2%, 329.7%, 251.5% 상승
 - ※ 1차 폭등 때 대비 환율 상승률은 유사하나 쌀값 상승률에서 큰 차이 (이에 대해서는 후술)
 - 7.1 조치 통화 증발 효과는 이후에도 5년간 더 이어져 최종적으로 7년간(2002년 3/4분기 ~ 2009년 3/4분기) 同 항목들이 각각 1,078.8%, 1,363.4%, 3,712.2% 상승
 - ※ 당국의 급진적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현 3차 폭등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강력 시사

〈표 3〉 북한 명목임금 인상 전후 시장 환율 및 쌀값 상승률 비교

단위: %

| 명목임금 | | 7.1 조치 이후 1차 폭등 | | | 현 3차 폭등 | | |
|-----------------------|-------|---------------------------------------------|---------|-------------|------------------------------------------------------------|---------|-------------|
| | | 인상 시점 | 최종 인상률 | 인상 전후 임금 차이 | 인상 시점 | 최종 인상률 | 인상 전후 임금 차이 |
| | | '02.7.1 일괄 시행 | 1,700.0 | 18배 | '23.말~'24 점진 시행 | 1,900.0 | 20배 |
| 인 플 레 이 션 | 기간 | 인상 후 2년간 상승률 (2002년 3/4분기 ~ 2004년 3/4분기) | | | 인상 후 2년간 상승률 (2024년 1/4분기 ~ 2026년 1/4분기) | | |
| | 항목 | 원/달러 | 원/위안 | 쌀값 | 원/달러 | 원/위안 | 쌀값 |
| | 누적 | 400.0 | 400.0 | 841.2 | 377.2 | 329.7 | 251.5 |
| | 연평균 | 200.0 | 200.0 | 420.6 | 188.6 | 164.8 | 125.7 |
| | 기간 | 인상 후 7년간 상승률 (2002년 3/4분기 ~ 2009년 3/4분기) | | | 인상 후 7년간 상승률 (2024년 1/4분기 ~ 2031년 1/4분기) | | |
| | 항목 | 원/달러 | 원/위안 | 쌀값 | 원/달러 | 원/위안 | 쌀값 |
| | 누적 | 1,078.8 | 1,363.4 | 3,712.2 | 당국의 급진적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환율은 1차 폭등 때와 유사, 쌀값은 그보다 상당히 낮은 상승률(?) | | |
| 연평균 | 154.1 | 194.8 | 530.3 | | | | |

자료: 〈표 1〉 주석 참조

2. 북한경제 전반

-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물가 폭등 효과를 상쇄함에 따라(실질 소득 증가), 아직은 대규모 식량난 등 큰 혼란은 없는 상황
 -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주식인 쌀보다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데, 아직은 쌀값 상승률이 훨씬 높은 상황
 - ※ 2024년 1/4분기 ~ 2026년 1/4분기 쌀값과 옥수수값 상승률은 각각 251.5%, 145.9% (<표 1> 참조)
 - ※ 단, 쌀값 상승률에는 투기 수요가 반영돼 있음을 고려할 필요
 - 식량의 시장 공급량은 줄었으나 총공급량은 예년과 유사
 - ※ 2024년 대비 2025년 총공급량은 쌀 및 옥수수 0.3%, 밀가루 26.3%, 전체 곡물 0.7% 증가 (<표 2> 참조)
 - 다만, 이번 임금 인상 조치에서 배제된 계층은 시장가격 폭등에 그대로 노출, 이미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 불가
 - ※ 임금 인상은 직장에 정상 출근하는 사람에 국한

- 그러나 현 물가 폭등세가 지속되면 총공급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 악화 소지 다대
 - 현재 북한 주민은 식량공급소(배급소)에서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양곡판매소와 시장에서 식량 구입
 - 양곡판매소 판매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장가격이 오르면 양곡판매소 판매가도 오르는 구조
 - 따라서 명목임금 인상의 혜택은 배급소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계층에 집중되며, 나머지 근로자와 주민은 시장가격 상승에 비례해 실질소득 증가 효과도 사라지는 상황
 - 임금 인상 조치에서 배제됐거나 인상폭이 크지 않았던 계층을 중심으로 향후 식량난 발생 소지 다대
 - ※ 북한은 2014년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를 도입하며, 기업 지배인에 노동보수 제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도 지불 능력에 따라 기업별로 큰 차이가 났을 것으로 예상

- 북한경제 전체로 보면, '가격 시그널'을 따라 국영부문 외화와 물자가 시장으로 유출되거나 거래에서 퇴장할 가능성 증대
 - 무역 주체(기관·일꾼) 입장에서는 시장 환율이 오르면 외화 동원력에 따라 수출용 국내 상품 동원력이 늘기 때문에 공식 결제망 밖에서 외화를 축장·사용할 유인이 증가
 - ※ 단속에 걸려서 받을 피해보다 실적 경쟁에서 뒤져서 받을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외화 유출 가속화
 - 당국은 임금 인상과 함께 국정가격을 약 40~50배 인상했으나, 물가폭등으로 국정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국영유통망 내 식량 및 물자가 시장으로 유출될 유인 급증¹⁵
 - ※ 쌀의 경우, 수매가격은 40원/kg → 2,000원/kg, 식량배급소 판매가격(배급가격)은 44원/kg → 2,000원/kg으로 인상했으나, 시장가격은 그 10배 수준인 20,000원/kg 안팎 (26-1/4분기 현재)

15 쌀 수매가는 약 50배, 식량공급소 판매가격(배급가격)은 45.5배 올렸으나, 기타 품목의 경우 인상폭 비공개.

참고문헌

- 강창욱. 2025. “1달러가 4만원…北 화폐가치 대폭락시킨 그 소문.” <국민일보> (1.17).
- 김효정. 2026.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수정.” <연합뉴스> (3.24).
- 농업진흥청. 2025. “올해 북한 식량작물 490만톤 생산, 전년 대비 12만톤 증가” (12.23).
- 남진욱. 2026.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 선 화. 2024. “北, ‘환율 상승 조장하면 단호히 쳐갈겨야’ 정치자료 배포.” <데일리 NK>(9.26).
- 양문수. 2025. “북한의 2023~24년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 이종규. 2026. “기रो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 임수호. 2010.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대내경제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 임수호. 2023.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 전략보고> 224호.
- 임수호. 2026. “북한의 대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INSS 전략보고> 374호.
- 한기범. 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북한 시장 환율·물가 데이터, <<https://ecos.bok.or.kr/#/SearchStat>, 검색일자: 2026.3.20).
- <데일리 NK> 북한 시장 환율·물가 데이터, <<https://www.dailynk.com/market/>, 검색일자: 2026.3.2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북한 통계 데이터,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BUKHAN&menuId=M_02_02, 검색일자: 2026.3.20).
- UN Comtrade 북한 무역 데이터, <<https://comtradeplus.un.org/>, 검색일자: 2026.3.20).
- <중국해관통계> 북한 무역 데이터, <<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자: 2026.3.20).

Abstract

A Storm in a Teacup or an Economic Tsunami: Causes and Outlook of the Recent Surge in North Korean Market Exchange Rates and Prices

Lim Soo-Ho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surge in North Korean market exchange rates and prices, which began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has continued for two full years. As of the first quarter of 2026, the won/dollar exchange rate, won/yuan exchange rate, and rice price have risen by 377.2%, 329.7%, and 251.5%,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first quarter of 2024. This marks the third instance of a prolonged price surge since the establishment of market systems in North Korea.

Regarding exchange rates, the causes lie in the depreciation of the won due to currency expansion, market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caused by policy contradictions, and private sector expectations and speculative demand for foreign currency. As for refined oil, the causes appear to be the surge in exchange rates coupled with reduced market supply due to crackdowns. As for food items(rice and corn), the causes appear to be the depreciation of the won relative to the real assets due to currency expansion, increased inflationary expectations and speculative demand, and a decrease in market supply resulting from crackdowns on grain trading.

Given that the core cause of the recent surge in exchange rates and prices is the depreciation of the won against foreign currency and real assets due to currency expans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is upward trend will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Furthermore, with speculative demand for foreign currency and real assets remaining in the market, the authorities' market controls are highly likely to actually accelerate the skyrocketing of exchange rates and

pri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s a whole, there is an increasing possibility that foreign currency and goods from the state-run sector will flow into the market or exit trade, following “price signals.” Consequently, the food situation for North Korean residents is also expected to worsen, particularly among the non-rationed classes.

Keywords: Inflation, currency expansion, speculation, supply and demand imbalance, market versus state-run distributio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April 2026
No. 377